

**나 아직 나야?
새 문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핵심 자아의 변화**

**Am I Still Me?
Changing the Core Self to
Fit a New Cultural Context**

Lois A. Dodds, M. A., M.A., Ph.D.
Lawrence E. Dodds, M.D., M.P.H., F.A.C.P.M.

**미국 기독교 상담가 협회
세계 대회**

September 23 to 27, 2003
Nashville, Tennessee

Heartstream Resources for Cross-Cultural Workers

101 Herman Lee Circle
Liverpool, PA 17045

Phone: 717-444-2374; Fax 717-444-2574

E-mail: heartstream@compuserve.com

www.heartstreamresources.org

Copyright, 2003. May be copied in entirety for non-profit educational use.

발표자:

로이스 다즈(Lois Dodds) 박사와 **로렌스 다즈(Lawrence Dodds) 박사**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와 SIL(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선교회에서 23년간 섬겼다. 그 가운데는 페루의 아마존 밀림에서 13년간의 사역도 포함된다. 이 기간 동안 로이스 다즈 박사는 다양한 후원/지원부대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에는 학교 및 지역사회 상담가로서, 고등학교 선생님이로서, 문화 인류학의 저자로서 그리고 언어학자로서 인적 자원 지원 담당으로 일하였다. 남편 로렌스 박사는 SIL과 WBT 멤버들과 다른 선교 단체들을 위한 의사로서 섬겼고, 또한 페루의 현지민들을 돌보는 것과 보건 건강 훈련 프로그램을 감독하였다.

로이스 도즈 박사는 웨스트몬트(Westmont) 대학을 졸업했고, 아주사 퍼시픽(Azusa Pacific) 대학에서는 인간 개발을 전공하는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산타 바바라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융합 교육학 (Confluent education)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UCSB (Univ. of California, Santa Barbara)에서 심리학과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열 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였고, 100여 개의 소논문들을 썼다. 그녀는 WBT의 선발 과정과 훈련 프로그램과 Quest (탐색부)에서 수년간 섬겼고, 이 프로그램 속에서는 상담과 수천 명의 후보들에게 강의하였다.

로렌스 다즈(Lawrence Dodds) 박사는 휘튼 대학을 졸업한 후에 남가주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고, 미국 군대에서 인턴쉽을 하였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캘리포니아의 벤추라 카운티에서 가정의로 개업을 하였다. 그는 예방의학에 대해 이사회에서 인증을 받았고 열대의학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하였다. 하트스트림 지원부와 일하기 전에 그는 캘리포니아의 벤추라 카운티의 공중보건 위원회 의장으로 섬겼다.

로이스 박사와 로렌스 박사는 모두 아주사 퍼시픽 대학의 해외연장 석사과정에서 여름 학기에 강의하였다. 그들은 지도력과 연관된 다양한 과정과 과목들을 강의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인간 개발, 총체적 인간 연구, 영성 형성, 윤리학, 창의적인 지도력, 그리고 상담을 강의하였다. 그들은 20여 개 국의 십여 개의 기관에 속한 타문화 사역자들에게 강의하기도 하였다. 다즈 박사 부부에게는 세 자녀들과 일곱 손자, 손녀들이 있다. 그 중 딸과 사위는 위클리프 선교회 선교사이다.

도즈 박사 부부는 하트스트림 자원들 (Heartstream Resources)의 설립자로, 하트스트림 자원들은 비영리 기관으로서 전 세계에 있는 타문화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섬기는 기관이다. 하트스트림 자원들은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4가지 목적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 교육/예방 프로그램과,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선교 기관들의 지도자들을 보조하는 것과, 타문화 사역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조사 연구하는 것이다. 하트스트림 자원들은 전인 돌봄을 제공하는데, 의료 지원과 상담, 영적 및 목회적 돌봄 그리고 다른 사역들을 포함한다.

요약

타문화로 나가는 것은 중요하고도 깊은 방식으로의 자아 변화를 요구한다. 새로운 문화의 관습과 가치에 자신을 맞추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은 자문화에서 형성된 자아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환영 받을 수 있고 또 발전될 수 있지만 값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정체성의 혼란과 자존감의 손실은 친숙한 사람들과 여러 관계를 상실한 결과이다. 자아를 향한 암시와 반응은 새로운 환경에서 급격하게 변화한다. 어떤 이는 다른 특성과 성질을 개발하고, 자신의 직업을 다른 방식으로 실행하며, 다른 수준의 사회적 구조에 자신을 적응 시키며, 소중히 여겨왔던 역할이나 자아의 모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본 글은 변화의 이유와 변화의 과정을 탐구하고 변화하는 자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또한 본 글은 타문화 사역을 하는 이들의 필요에 집중할 것이다.

나 아직 남아?

사역지에 부임한지 1년 반 된 한 젊은 선교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의 모든 부분이 해체되어 놓여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떨어져 분리되었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고 누가 나를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한탄을 종종 듣는데, 특히 해외에서 첫 해를 보낸 이들에게서 그렇다.

새 정체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도전은 타문화로 들어가기로 선택했거나 그렇게 하도록 강요된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직면하는 바이다. 이 과업은 난민이 되는 고통스러운 측면 중 하나이며, 더 희망적인 이유로 이주를 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문화로의 이동을 강요 받았던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다른 문화권으로의 이동은 복합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다. 소중하고 친숙한 것들을 떠나는 슬픔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수준의 변화도 종종 일어난다. 세계에 있는 이민자와 난민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정체성의 혼란과 새로운 상황에서 새 자아를 형성할 필요에 대한 비슷한 유형을 보여준다. 특히 높은 지위에 있었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이들이 고국을 떠나면 몰락의 충격을 받게 된다. 전에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남의 자원을 이용하는 침입자로 대접받거나,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처지로 멸시를 받거나, 더 심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아프가니스탄이 공산화되었던 시절 자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온 한 아프가니스탄 가정과 교제를 하며 이를 목격하였다. 실력 있는 의사였던 남편은 후에 자살을 하였다.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의사라는 그의 직업을 실행할 수 없어서 나타난 정체성과 지위의 손실을 극복하지 못한 듯 하였다.

이러한 자아의 변화에 대한 문제는 선교 훈련이나 타문화 사역 준비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적응은 타문화로 가는데 있어서 아주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적절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요구될 수 있다. 선교와 타문화 훈련 프로그램에서 자아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도움이 되리라

민는다. 이러한 가르침은 자신과 다른 이들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해 준다. 이는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방법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훈련은 표면적이고 외부적인 변화에 집중하며 요구되는 깊은 변화를 다루거나 예상하지는 않는다.

이론적 시각

자아를 확립하는 것은 삶 전체를 통해 진행되는 과정이다. 고유한 자아 형성 작업은 복잡한 과정이며 출생부터 시작된다. 성격 (자아, 인간됨)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은 유전적 영향의 정도에 따른 다른 강조를 두고 있는데,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점은 인간은 일정 정도의 성질과 특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우리가 물려 받은 것은 여러 요인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 요인은 주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상황과 원래의 가족이다.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사랑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누가 우리를 위해 자리/여지를 내주는가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자아)이 가장 강하게 결정된다. (Fromm, in Wrightsman, 1988)

에릭 에릭슨 (Erik Erikson) (1950, 1956, 1968)은 정체성의 개발과 형성 그리고 정체성과 관련된 위기와 혼란에 대한 이론으로 가장 알려진 존경 받는 학자이다. 그는 정체성을 가치와 신념 사이에 존재하는 일관성 속에서 “자아 내부의 지속되는 동일함”이라고 규정했다 (p. 62, Wrightsman, 1988) 에릭슨의 이론은 주로 청년과 사춘기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¹

다른 학자들은 에릭슨의 작업 위에 자신의 이론을 형성하였다. 맥아담스 (1985)는 정체성을 “인생 이야기”의 작용으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을 통합해 나간다.² 제임스 마르시아 (1966, 1980)는 정체성의 4가지 “상태”를 제안했는데, 이 4가지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혼란과 확산 (위기를 경험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다), 2) 정체성 사전 정지 foreclosure (위기를 경험하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체득하는 가치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3) 정체성 유예(moratorium), 정체성이 정지되어 있거나 진행 과정 중인 상태, 4) 정체성 달성. 마르시아의 제안은 선교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정체성의 여러 다른 “상태”에서 타문화로 간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결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두번째와 네번째의 상태에 있는

¹ 에릭슨(Erikson) (in Wrightsman, 1988, p. 63)은 정체성 혼란이 결정할 수 없는 능력에서 일부 기인했다고 제안했다. 이 설명은 타문화의 삶에서 매우 타당한데 그 이유는 개인이 고국의 문화와 현지 문화의 표현 방식, 언어, 행동 그리고 가치 사이에서 지속적인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종 사람들은 선택 상황에서 (문화 충격과 같은) 과도한 부담을 경험하는데, 이때 무력한 상황은 혼란과 위기를 불러 온다.

² 맥아담(McAdam)의 이론은 흥미롭다. 하트스트림의 집중 돌봄 (Intensive Care) 프로그램은 정체성과 의미를 회복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돌보는 수단으로 이야기 요법(narrative therapy)를 상당히 강조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Powell and Bowers, 2002를 참조하라.

사람들이 가장 그러했다. 또한 타문화 적응에서의 적절성은 마르시아가 묘사한 상태에서의 위기와 참여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왜 새 자아인가?

1. **선택 받았으나 어울리지 않음:** 우리 각자는 자국의 문화에 의해 형성되었고, 이 자국의 문화는 가족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그렇게 될지에 대해 배운 더 확장된 상황이다. 우리는 사회화된 세계에 '맞는' 사람으로 되어 간다. 하지만 새로운 현실에서 유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라는 존재는 새로운 문화의 기대와 요구 속에서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다시 사회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순적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교회로부터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지금의 내 자신과 지금까지의 내 자신이라는 존재 때문에 선교를 위해 우리가 선택 받았기 때문이다. 훈련을 시키는 자가 우리 안에 있는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의 어떤 정도를 보고 우리를 (선교사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선교사 후보생이 되는 영광과 흥분 속에서 대체로 인식되지 않는다. 다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유로 선택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달라" 지는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는 부분적으로 타문화에 대한 도전이 시도되기 이전의 정체성 달성의 정도를 반영한 듯 하다. 자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변화를 만드는데 있어서 더 힘들어 하며, 자국으로 돌아 올 때도 더 중대한 고통을 받는 일들을 목격했다.

2. **친숙하고 선호하였던 역할의 상실:** 우리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측면은 우리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해외의 삶에 적응한다는 것은 이러한 역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역할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과 관련된 우리의 모습을 포기하여야 하며 우리가 아끼는 것도 포기해야 할 지 모른다. 이는 불균형을 초래한다. 우리가 우리 자아의 측면들을 버리고 이국적으로 보이고 심지어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새로운 측면들을 취할 때 우리는 균형 감각을 손실한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심지어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는 행동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기까지 한다. 미국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를 어루만지곤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않기 위해 배우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역할을 실천해야 할 지도 모른다.

3. **긍정의 상실:** 자문화에서 우리는 특정한 방법으로 긍정을 얻는 방법을 배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충만함을 준다. 우리는 제스처를 배우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용납되고, 허락되는 반응을 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 대부분에게 이것은 무의식적인 과정이다. 긍정의 결핍을 경험하는 새로운 문화권에서 우리의 무례가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것이 확실하였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법을 배운다. 다른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밖에 없게 된다. 긍정과 격려가 없다면 우리의 감정

자원은 메마르게 된다. 새로운 환경에서 기대되는 것을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비판을 받고 심지어 멸시도 받는다. 우리가 다시 자국으로 돌아 왔을 때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자문화에 남아 있는 중요한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긍정을 받지 못하는 방식이 종종 변화되기 때문이다.

4. **준거 집단의 상실:** 우리에게 긍정을 주는 다양한 준거 집단을 통해 자국에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운다. 이 집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위치 그리고 받아 들여지고 기대되는 범위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킨다. 다른 문화권으로 진입할 때 종종 우리는 모든 준거 집단을 **즉시 단번에** 잃게 된다. 미혼인 사람은 새로운 환경으로 함께 동반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부부나 가족은 동반 가족이 있다. 이상적으로 부부나 가족은 서로에게 꾸준한 긍정을 제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정적인 인원이 있는 새로운 준거 집단을 만드는 데 수년이 걸린다. 그 동안 우리는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고립감과 외로움은 자아의 손실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선교 단체로 하여금 개인이나 부부 보다는 팀으로 파송하도록 강력하게 권한다.

5. **자아에 대한 각성:**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상주의적이며 특히 선교사들은 더욱 그렇다. 선교사들은 가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기 원한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희생으로 변화를 만들려 한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믿는 만큼 그렇게 '유능하지도' "사랑스럽지도" 또는 "헌신되어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이다.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아에 자신이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우리 집 담장에 침을 뱉고 어린이들이 소파를 적시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경험이 기억 난다. 천성적으로 친근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변화의 고통과 지금까지의 자신을 잃는다는 것은 나무의 잔가지를 잘라내는 작업과 같다. 우리의 삶의 열매와 잎은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옮겨 심어졌을 때 잘라지게 된다.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전환될 때 비틀어진 가지들은 버려지는 것이다. 새 땅에 뿌리가 내려 지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며 고통스럽고 심지어 종종 추한 일이다. 이는 내가 꽃다발이나 전구를 우편으로 주문했을 때 일어난 일을 상기시켜 준다. 나의 정원을 환하게 하기 위해 번쩍거리는 광고지 위에 있는 화사한 꽃들을 주문했다. 하지만 도착한 것들은 생명이 없어 보이는 황토색의 덩어리였다. 꽃 가게에서 온 황토색 봉지 안에 들어 있는 "그것들"을 화단에 심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했다! 나는 화사한 꽃을 원했고 볼품 없는 뿌리에서 달콤한 생명이 나오는 느린 과정은 좋아하지 않았다. 한 개의 전구를 달고, 줄기를 심고, 볼품 없는 뿌리를 심는 것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은 알지만 시작하기에는 멋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다.

물론 일단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하기 시작하면 자문화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과거의 우리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이전과 동일하게 인식되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손실을 의미하고, 이 손실은 슬픔을 발생시키고 비탄에 젖게 할

것이다. 아마존 정글에서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후에 나는 친구에게 이러한 농담을 하곤 하였다. “기억하는가, 내가 페루에서의 삶에 적응하도록 자네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이네! 하나님의 자네의 기도를 응답하셨네!”

6. **아기 상태로의 퇴행:** 타문화로 가는 대부분 사람들의 특성 중 하나는 매일의 삶의 모든 요소들은 물론 자신의 비전과 가치, 희망, 꿈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측면을 관리할 수 있는 자질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아기의 상태로 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울한 일이다. 어린 아이의 언어와 문화적 지식이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목격하면 좋은 경우 겸손해 진다. 더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유아기 상태로 퇴행한다.

7. **새 문화에 대한 “환멸”:** 타문화로 간다는 의미는 “환멸”을 느끼는 제도권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이는 우리가 자국의 사회에서 느끼는 환멸과는 다른 방식일 것이다. 프롬 (Fromm) (p. 173, Wrightsman, 1988)은 완전히 건전한 사회를 가진 문화권은 없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실제로 심리사회적으로 환멸을 느끼는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수 있다. 이는 적응 과정을 만들어 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을 받아 들이고 (건전한 측면) 무엇을 거부할 지(건전하지 않은 측면)를 분별해 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그 제도 안에서 이해하고 작업하지만 우리는 그 문화 전체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순응해야 한다.

여러해 동안 아마존에서 살면서 나는 아주 불건전한 사회와 접촉을 한 경험을 하였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자면 생명과 정반대의 측면인 악, 심지어 “사탄적”인 요소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면, 한 문화권에서는 임신과 수유 기간 동안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금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음식은 고기, 과일, 그리고 특정 채소를 제외한 모든 채소이다. 이로 인해 아주 심한 저체중 아기의 출산과 2~3번의 임신 후에는 여성의 심각한 영양 실조를 야기시켰다. 다른 문화권은 소년에게 5살부터 환각을 만들어 내는 약물을 사용할 준비를 시키는데, 소년은 유능한 살인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도울 영을 찾기 위해 숲을 돌아 다닐 때 그러한 약물을 사용한다.

우리의 연구를 통해 타문화 사역자가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건전하지 못한 가치와 관습을 가진 문화권으로 들어서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다. (룻의 이야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의 행실이 “영에 사로잡혀 마음이 산란해” 졌기 때문이었다.) 성인 남성이 6살의 어린 소녀를 신부로 취하는 문화에서 어떤 식으로 적절히 적응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화권에서 새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것은 복잡하고 심신을 지치게 하는 일이다.

정체성에 대한 면밀한 고찰

타문화로 나아가는 데에는 본질적으로 자아의 적응 과정이 필요한데, 문화가 우리에게 적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아의 표면적 그리고 내적 측면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변화하여야 한다. 한 개인의 삶의 대부분이 변화하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적응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며, 성공적인 적응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힘든 과정이며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작업이다. 우리 가운데 소수만이 이러한 소모적인 작업에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주는 정체성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심신을 지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 일이 계속 진행되면 두뇌 구조와 화학 반응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 (*Scientific American*, September, 2003, including "Taming Stress," by Robert Sapolsky, pp. 86 to 95에 나오는 우울증에서의 만성 스트레스의 역할에 대한 최근 연구를 참조하라. Robert Sapolsky는 *Why Zebras Don't Get Ulcers*도 저술했다.)

한 개인의 전체 삶의 유형이 재정립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복합적인 삶의 요소들이 일제히 변화하기 때문이다. 타문화 사역으로 진출하는 한 개인은 하루 아침에 자신의 문화적 상황과 하는 일, 역할, 장소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바뀐다. 그는 대부분의 가족, 친구, 지인들은 남겨두고 떠난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손실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 또는 기후, 옷, 음식과 같이 표면적 수준의 것들은 실재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에 의한 힘의 소비도 많다. 이것들은 자아의 적응을 심하게 압박한다.

준거 집단의 손실은 정체성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으로 인정되는 지에 대해 미묘하고 또 명백한 반응을 해 주는 친숙한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다. 새로운 반응을 해 주는 사람들은 원래의 문화와 언어권에서 온 이들이 아니다. 이들은 우리 자아에 대해 아주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적응 초기 단계에서 이들은 우리가 새로운 문화 환경과 새로운 역할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해 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내가 대화를 나누었던 많은 젊은 부모들은 그들의 새 문화가 종종 그들에게 "나쁜" 부모라고 말해 준다고 했다. 어떻게 책임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악의 눈에서 구해줄 팔찌를 채워주지 않죠? 어떻게 부모가 악한 영이 든도록 자녀의 이름을 크게 부를 수 있죠?

내가 언어 훈련을 받던 첫날, SIL 선교회의 렌취(Cal Rensch) 박사는 나에게 "오늘부터 당신은 이제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사람들에게 절대로 속해 있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떠난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속해 있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말을 경험했다. 내가 선교사가 되는 과정에 있었을 때, 고국의 사람들은 나를 헌신과 영성의 본보기로 삼으로 나를 이상화 시켰다. 내가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마음에 둘 수 없었을 지라도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생각들을 나에게 표출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긍정을 잃어버리게 되자 충격으로 다가왔다. 일부 페루의 사람들로부터 "제국주의자, 페루를 참견하러 온 자, 그리고 자기 이해로 가득 찬 자"라는 말과 함께 다른 경멸적인 용어의 반응을 듣게 된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내가 페루에 온 것에 감사하지 않았고, 페루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에 대해 감동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의 결심이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고,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했다. 나는 언어적 손실과 함께 나의 선교 동기와 나의 성격에 대한 오해로 자존심의 손실도 경험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잘 알게 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인 반응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정도가 될 때까지 나는 나를 알리는 일을 시작했다.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과거가 없기 때문이 이 일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는 동안 나를 감정적으로 풍성하게 해 줄 긍정에 목마르게 되었다. 내가 페루로 옮겼을 때나 미국에 있었을 때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한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면, 옛 것의 일부와 새것의 일부가 통합된 그런 새로운 정체성, 즉 자아에 대한 변경된 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전의 자아를 버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는 쉽거나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성실성(integrity)을 지키려 한다면, 자아의 어떤 측면을 양보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측면은 변할 수 없는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내가 페루에 처음 갔었을 때 “진정한 페루인”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이는 내 자신과 충돌하는 어떤 태도와 관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와 정직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내 자신이나 나의 기독교 하위 문화에 맞지 않을 정도까지 나를 변화시켜야 했다.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것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초라해지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변화의 중간 지대를 찾아야 했고, 그래서 나의 원래 문화에 다시는 맞지 않게 되며, 새로운 문화에도 온전한 구성원이 될 수 없게 되었다. 경계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인류학적 의미의 중간 인간인 “주변 인간 (marginal person)”이 되기 위해 나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냈어야 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두 개의 세상 사이의 다리가 되어야만 했다. 이 다리는 결코 통합될 수 없는 두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였다. 나는 완벽한 동화(assimilation)와 문화 적응(acculturation) 이라는 나의 목표를 포기하고 기능적 수준의 적응에 만족했어야 했다.

미국에서 나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교회를 섬기는 창조적 신도로서, 이웃을 풍성하게 하는 교육자로서, 질서 있고 만족할 만한 삶을 누리었다. 아마존 정글로 이동하면서 내가 정성 들여 만들어 낸 삶이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맞추기 어려운 퍼즐과 같은 삶으로 내가 추락해 버린 것 같았다. 새로운 문화에서 삶을 다시 구성하고 정돈하는 것은 내 자신을 다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의 비행기 탑승 주치의로 섬겼었고 우주와 항공 비행에 전문화된 최고의 훈련을 받았던 엘리트에서 창문에 유리도 없는 볼품 없는 정글의 의료소에서 현대 의료 장비도 없이 진료를 하는 의사가 되어 버린 남편도 직업적 정체성의 변화를 맞이 하였다.

자존감 변화의 유형

타문화 사역과 상황 그리고 언어에서 비롯되는 변화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자존심에 타격을 준다. 타당한 (또는 타당하지 못한) 것을 알려주는 문화적 신호는 종종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며 심지어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기도 한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 지는데 그 이유는 실제의 메시지와 반응을 보이는 수단이 전과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합함 또는 그 과정을 가늠하는 것이 어렵다. 우리를 향한 기대는 아주 중대한 방법에서 다양하며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다.

어떤 것이 기대되며 어떤 것이 허용되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선교사 이탈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남미로 간 한 미혼 선교사의 경우이다. 이 선교사는 버스에서 모국에서 온 동포를 만났고, 사역지에 온지 2주 만에 구애를 받아 그와 동거에 이르렀다.

한 개인이 목회나 가르침과 같은 동일한 일을 하기 위해 타국에 가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가치와 태도, 그리고 동일한 자료로 실행하지 않을 능성이 높다. 자신감을 주게 했던 훈련과 중요한 능력을 없던 것처럼 취급해야 할 수 있다. 자원의 손실과 경험의 내적 기준의 양보는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며, 신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끈다. 일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 도구, 기준, 척도들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새 동료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직업과 직무를 개념화할 수 있다. 새 문화는 사회구조에서 우리의 새 직업과 역할을 다른 지위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지, 이전의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응과 분별을 요구한다. 빠른 속도의 변화와 다양성에 적응하고 잘 대처하는 자신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언어 습득은 특별히 자아상과 자존감에 어려움을 준다. 자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이 목회를 준비하듯이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말을 잘 하며 의사소통에 원활하다. 교육을 받고 달변인 사람이 새로운 상황에 들어갈 때, 첫 2년 동안에는 어린아이들도 자신보다 말을 더 잘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그를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수를 하기 주저한다. 성경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언어 습득 과정은 많은 실수와 지속적인 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주저는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5년의 선교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언어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자아의 손실을 경험하는 듯 보였다. 언어에 익숙해지면 자존감은 다시 향상된다.

자존감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영역은 성공이다. 종종 구체적이지 않은 목표가 이끄는 장기 사역에서 성취를 측정하고 목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비전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분명치 않고 알아차릴 수 없는 사역 과정은 회의(의심)를 만들어 낸다. 효율성 그리고 우리의 희생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가늠하는가? 끝날 줄 모르고, 완성되지 않은 선교 사역이 성취감과 자신감의 결여를 가져 올 수 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사역을 유지하도록 하는 충분한 성공감을 주는 평온한 상태에 이른다.³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전망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의 자아는 다시 동요하게 된다. 장기

³ 윌리엄 테일러 (William Taylor)는 자신의 저서 *Too Valuable To Lose* 에서 선교사 이탈 비율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 주며 선교계를 놀라게 하였다.

타문화 사역자들은 자국 또는 “규칙적인” 삶과 사역으로 돌아갈 때 동요를 극복할 능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는 공포나 좌절감을 만들어 낸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화한 선교사들은 자신이 이전의 환경에 다시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동요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문화 충격을 받은 초기 몇 년 동안 자존감이 크게 감소하며, 자존감 회복이나 상승은 새로운 문화와 현장 상황에 적응함으로써 나타나는 듯 하다. 그리고 자국에 다시 들어가거나 안식년을 보낼 때 자존감이 다시 감소한다. 그 후 사역지로 돌아가면 성공감을 맛본 이들에게는 자존감이 다시 상승한다. 하지만 적응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꾸준한 문화적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타문화 사역이 요구하는 지속적인 변화로 인해 하나의 순환적인 유형이 형성되는 듯 하다. 특히 사역 초기 수년 동안에 편안하고 정상적인 평정심에 이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자존감과 관련이 있는 다른 중요한 요소는, 특별히 근본주의적 신앙의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타문화 사역에 들어서기도 전에 죄책감, 수치 그리고 무가치에 휘말린다는 사실이다.

어떤 이들은 성격이 변덕스럽고, 우울증이나 자기 회의에 선천적 또는 가족력이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새로운 문화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발생하는 자아에 대한 모든 도전이 혼합하여 추가적인 취약성을 만들어 낸다. 이 요인들은 선교사 선발 과정에서 주의 깊게 평가되어야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수천 명의 타문화 사역자에게 실시된 윌리엄스(Williams) 자존감 목록을 사용하여 10개 중 가장 낮은 3개의 자존감 영역이 발견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1)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함, 2) 자신의 약점을 용납하지 못함, 3)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음. 이 3가지의 감정의 실체는 기독교 신학에 완전히 반하는 것들이다.

특정한 상황이 선교사와 타문화 사역을 하는 이들의 자존감에 특별한 상처를 준다. 한 개인이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잘 획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문화로 들어갔으나 변화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을 때 자존감과 정체성은 크게 손상된다. 만약 본 교회가 '실패'와 "선교사답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을 할 때 혼합 반응이 나타난다. 이러한 세 번의 자존감과 정체성 손상은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타문화 사역을 했지만 상처를 받아 돌아간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 평정심을 찾으려는 그들의 시도가 때로는 비적응적 행동을 야기한다. 적절한 돌봄이 없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의 경우 사역과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들은 수년 동안 주변을 맴돌 수 있지만 이 자체로도 큰 소실이다! "강제성 있는" 본국 송환은 아주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수 년간의 "성공" 후에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들은 더 편안하게 적응하는 듯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적 자원이 증가함으로써 향상된 자존감 때문으로 보인다.

사역의 성격 특히 타문화 사역의 성격은, "검증된 삶"과 "최대한 모든 기회를 만드는" 지속적인 선택에 대한 기대로 인해 자아 회의(의심)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 한 젊은 선교사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모든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책임이 주어진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하든, 하지 않든 아주 실제적인 결과가 따라온다.”

종교적이지 않은 이유로 타문화권으로 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아 회의와 자존감 상실로 고통을 받는 경향이 있다. 한 대사관 직원은 3일 동안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세미나 참석 이후 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우리도 당신 선교사들과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만은 하나님이 없어요!”

정체성 형성에서의 성령의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 주제를 특히 골로새서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타문화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진척된 배움의 기회로 보인다. 우리의 영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 성장은 새로운 요구와 기회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더 온전한 쓰여짐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더 자주 그리고 더 진지한 시험을 내려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그분 안에 있다는 점을 배우도록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이동하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문화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이동하고, 존재하였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급진적인 사고 전환이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문화적 환경과 가치를 받아 들였던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가치를 통해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급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고국에 있는 일반적 기독교인들보다 더 빠르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문화 적응으로 인해 더 가속화되고 만성적인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자아의 토대에 “틈”을 만든다. 압박은 작은 균열을 더 크게 만들고 심지어 큰 구멍으로 발전되게 한다. 모든 스트레스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변화(transformation)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준다. 큰 시련 속에서 이상적 자아로 살아 가는 것은 더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알게 된다. 인간의 사랑과 이상주의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달성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한다. 인간의 사랑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반드시 소유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깨달음은 찬사를 받을 만한 과정은 아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보통 과거의 문화에서의 과거의 경험을 사용하여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불안한 상황에서 발전되었던 방식으로 퇴보하거나 되돌아간다. 우리는 후퇴하거나 또는 맞설 수 있다. 새 스트레스가 우리의 옛 경험과 상처를 건드려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린 시절의 왜곡에서 배웠던 우리 자신에 대한 거짓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되돌아 간다.

시편 저자가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통곡하거나 절망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시편 142). 우리 마음이 깨지고 우리 영이 혼미해짐을 느낄 수 있다 (시편 143:3, 4). 하지만 언젠가 “의인이 그의 선하심으로 나를 감쌀 것이라”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시편 142:7 후반)

타문화 사역자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에 대한 오래된 믿음과 현장에서의 스트레스가 합쳐서 사역에서 무력화된 이들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마음의 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성경은 우리가 거짓에 현혹된다고 여러 번 말했다. 이사야 44:18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들을 “재에 가려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재는 신랄하며 파괴적이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낸 우리 다수에게 거짓도 그러하다. 시편 143은 원수가 우리를 어둠으로 던져 넣어 우리의 영이 혼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당황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압박을 당할 때, “거짓의 아버지”는 우리 자신에게 온갖 상처되는 것으로 우리를 데려 간다. 타문화 경험에 의한 압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숨어 있는 것들에 빛을 비춘다.

하나님은 자유로부터의 해방을 주신다. 하나님은 어둠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파괴적인 거짓말을 그의 위대한 진리로 대치하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61:3).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변화하도록 허락하신다 (로마서 12:1).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보증하신다 (로마서 8:1)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열어줄 열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이야기에 나와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다, “동전 위에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자인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새겨져 있는가?

성장을 위한 전략

전문 상담자와 동료 사역자를 포함한 타문화 사역자를 위한 모든 상담자는 자존감 손실과 정체성 전환의 기간에 있는 이들을 다음의 중요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

1. 정체성이 변화하고 자존감이 동요하는 과정에 대해 알려준다. 그리하여 자신이 ‘미쳐버린’ 상황이 아니며 또한 혼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도록 한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알도록 돕는다.

2. 인간의 유일함과 선천적 가치, 특별히 그리스도 안의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성경적 관점을 통한 정체성을 확언해 준다. 상처 받은 이들을 돌본다. 상담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는 것은 내담자가

평정심을 회복하는 동기와 에너지의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3. 내담자가 자아의 핵심 측면을 확인하고, 자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상대적으로 안정되도록 유지시키며, 변화를 위해 무엇을 양보할 지 분별하도록 돕는다.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선교 현지 문화의 특정 측면이 왜 적응하기에 더 어려운 지를 알도록 도와준다.

4. 이미 견뎌낸 스트레스의 정도와 이미 달성한 변화의 양에 의해 증명되어 명백하게 밝혀진 내담자의 적응 능력을 확인해 준다.

5. 적응을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에 대해 교육하고, 타문화 사역에 요구되는 변화의 모든 단계 안에서 자아에 대한 건전한 감각을 유지하려 할 때의 어려움과 그 실상을 확인해 준다.

6. 성숙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우리를 확증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교육한다.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 성장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임재와 삶에 대해 교육한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숨어있는 잘못, 은밀한 죄, 상처가 되는 방식)을 보여 주시며, 변화를 이루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설명한다. (성숙과 개발을 위한 성령님의 역할을 연구한 논문 Dodds, 1992 을 참조하라. 이 논문은 타문화 사역자의 성숙과 관련성이 많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높게 발전하면, 특정한 문화를 초월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는 진리를 내담자가 내면화하도록 돕는다 (Dodds, 1992). 하나님 안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있다.

7. 내담자가 실패, 실망, 필요, 변화, 어려움을 나누면서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는 소규모 모임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혼자서는 달성하기 힘든 고통에 대한 관점을 갖도록 해준다.

도움이 될 만한 성경적 관점: 에베소서 1장과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설명하는 다른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자아를 향한 긍정적인 감정을 다시 경험하며 변하지 않는 중요한 정체성의 측면에 집중하기 위한 소중한 작업이다. (Dodds 의 자존감, 1980 을 참조하라.)

추가 질문을 위한 제안

타문화로 가기 이전의 자문화에서 달성한 개인 수준의 개발과 선교 현지 문화에서 정체성 적응의 정도와 속도에 대한 연구는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 두 개의 연구 사이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타문화 생활과 관련된 단체와 개인이 변화하는 정체성에 대한 큰 도전을 받아 들이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응 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제적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교 현지 문화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재앙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정체성과 변화의 문제가 더 잘 이해 된다면 자문화로 돌아올 때 "실패"로 간주되는

일들도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자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더 깊은 이해와 전략이 있다면 아마도 자국으로의 재입국 과정은 더 순조로울 수 있다.

관련 도서 및 추천 도서

- Chester, Raymond M. 1983. Stress on missionary families living in "Other Culture" situation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 30-37. Reprinted in O'Donnell and O'Donnell, 1988, p. 164-185.
- Dodds, Lois A. 1980. *How do I look from up there?* The Biblical basis for self-esteem. Wheaton, Illinois: Scripture Press.
- ____ and Dodds, Lawrence E. 1997. Am I Still Me? *AACC World Congress on Christian Counseling*. (First version)
- ____ and Dodds, Lawrence E. 1997. Stressed from core to cosmos: needs and issues arising from cross-cultural ministry. *AACC World Congress on Christian Counseling*. Formerly presented at other AACC conferences. Available from Heartstream Resources.
- ____ and _____. 1994. Why missionaries go bananas. A developmental model of disease and levels of intervention. *Mental Health and Missions Conference*. Available from Heartstream Resources, 101 Herman Lee Circle, Liverpool, PA 17045. Available on web site or Heartstream@compuserve.com
- ____. 1992. Doctoral dissertation: *The Role of Supernatural, Spiritual Power in Personality Growth and Change*. Published b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Hard copy and microfiche.
- ____. 1999.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Personality Growth and Develop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Summer. pp. 129-139. (centerpiece article, by invitation)
- ____. 1998. "Stressed From Core to Cosmos" published in three parts. *Women of The Harvest*, Jan/Feb/March issue, 1998; April/May/June issue, 1998; July/August/Sept issue, 1998.
- ____. "Reflections of A Mid-life Missionary," poem. *Women of The Harvest*, July/August/Sept., 1998.
- ____. "Displaced Again," poem. *Women of The Harvest*, Premier issue, Oct/Nov/Dec. 1997.
- ____. "Stressed from Core to Cosmos: Needs and Issues Arising from Cross-cultural Ministry." *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ors*, March 22, 23, 1995, Philadelphia, and Pittsburgh AACC September 22, 23, 1995. Later published in *Christian Counseling* newsletter, fall, 1995. Presented again by invitation to ACCM in various regional meetings.
- ____ and Lawrence: Chapter, "Intensive care community: moving beyond surviving to thriving," pp. 415 to 422, in Powell, John, and Bowers, Joyce. 2002. *Enhancing Missionary vitality: Mental Health professions serving global mission*. Palmer Lake, Colorado: Missionary Training International.
- Donovan, Kath. *The pastoral care of missionaries: The responsibilities of church and mission*. Sept. 1992, Melbourne, New Zealand: Bible College of Victoria.
- Erikson, Erik.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____. The process of ego identity. *Journal of Psychoanalytical Association*. 4, 56-121.
- ____.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ardner, Laura Mae. 1987. Proactive care of missionary personnel.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5. p. 308-314. Reprinted in O'Donnell and O'Donnell, 1988, p. 432-443.
- Hall, Calvin, and Lindzey, Gardner. 1978. *Theories of Personality*. Third edition. New York: Wiley and Sons.
- Jones, Michael E. Ed. 1993. *Caring for the missionary into the 21st century*. Available through Heartstream Resources in the U.S. or Interhealth in London.
- Larson, Mildred, and Dodds, Lois A. 1985. *Treasure in clay pots: an Amazon people on the wheel of change*. (Illustrates the stresses of cross-cultural life and their effects on a mission team.) Palm Desert, CA: Person to Person Books.
- ____ and _____. *Treasure in Clay Pots: An Amazon People on The Wheel of Change*. Nashville, TN: Thomas Nelson, Publishers. 1991. Paper, pp. 305. (An account of culture change among one of the Jivaroan groups of the Peruvian Amazon.)
- Lovell, Debbie. 1998?. In process: dissertation on self-esteem in missionaries. See Dissertation Abstracts.
- Lynn, Jay and Garske, John. 1985. *Contemporary Psychotherapies: Models and Methods*. Columbus: Charles E. Merrill Publ.
- Marcia, John.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McAdams, D.P. 1985. *Power, intimacy, and the life story: Personological inquiries into identity*. Homewood, IL: Dow Jones-Irwin.
- _____. 1987. A life-story model of identity. In R. Hogan & W. H. Jones (Eds.), *Perspectives on personality* (Vol. 2, pp. 15-50). Greenwich, CT: JAI.
- Mueller, D., Edwards, D. W., and Yarvia, R. M. 1977. Stressful life events and psychiatric symptomatology: Change or undesirab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ology*. 18, 307-316.
- O'Donnell, Kelly S. and Michele L., eds. 1988. *Helping missionaries grow: readings in mental health and missions*.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 O'Donnell, Kelly S., ed. *Missionary Care*. 1992.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 _____. 2002. *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 Powell, John, and Bowers, Joyce. 2002. *Enhancing Missionary Vitality: Mental Health professions serving global mission*. See Dodds' chapter, "Intensive care community: moving beyond surviving to thriving," pp. 415 to 422.
- Roembke, Leanne. 2000. *Building credible multi-cultural teams*.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 Schubert, Esther. 1993. *What missionaries need to know about burnout and depression*. New Castle, IN: Olive Branch Publ.
- Scientific American*. Whole issue devoted to the brain. September, 2003.
- Shaver, Harold, and Dodds, Lois. 1990. *Los Nomatsiguenga de la Selva Central*. Series "Comunidades y Culturas Peruanas," No. 24. (Harold Shaver and Lois Dodds) Pucallpa, Ucayali, Peru: Ministerio de Educacion, Instituto Lingüístico de Verano. An ethnography of a

native group in the Peruvian Amazon; Spanish translation of the English version published 1980. Paper, pp 134.

Taylor, William. 1997. *Too valuable to lose*.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Vinokur, A. & Selzer, M. L. 1975. Desirable versus undesirable life events: their relationship to stress and ment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329-337.

Williams, Kenneth. Wycliffe Bible Translators and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Self-esteem inventory. Used by permission.

Wrightsman, Lawrence. 1988. *Personality Development in Adulthood*, Newbury Park, CA. Sage Publ.